



남원경찰, 여성폭력범죄 2차 피해예방 교육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여성청소년과는 1일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2차 피해방지 인식을 현장에 체질화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을 대상으로 2차 피해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2차 피해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의미하고, 여성폭력범죄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이버)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성매매 등이 포함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왕정동, 수호천사봉사회 봉사활동

남원시 왕정동 수호천사봉사회(회장 이도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활동을 중단한 봉사활동으로 지난달 31일 관내 저소득 취약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정비를 실시하는 등년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섰다.

방미자 왕정동장을 비롯한 수호천사봉사회원 13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7동 오모씨 가구에서 옷장 정리장동과 주방, 화장실 등을 청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왕정동 수호천사봉사회는 2008년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1회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경찰, 습득한 물건 신고 초등학생 상장 수여

무주경찰서(서장 빈중석)는 지난 1일 무주군 중앙초등학교를 방문, 하룻길 동전주머니를 습득하여 신고한 초등학생 김모(12)군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위 학생은 지난 3월 25일 16시경 하룻길에서 동전주머니(2,300원)를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달라며 신고한 것이었다. 상장과 부상을 전달받은 학생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상을 받게 되어 쑥스럽지만 기쁘다"며 소감을 밝혔다.

무주중앙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한 빈중석 무주경찰서장은 "작은 물품이라도 분실자의 마음을 헤아린 따뜻한 정직한 성품을 오래도록 간직해 달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의용소방대 부부’ 이웃집 화재 진압

진안소방서 표창·소화기를 선물로 지급

진안소방서(서장 오정철)는 1일 이웃집 주택화재 초기 진압에 성공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평가마을 이웃집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가까이 가서 확인한 바, 이웃집 주변 창고에서 불길 및 연기가 치솟고 있어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 하였다.

이웃집 소화기 1대로 부족하여 이성재씨 본인 집의 소화기 2대를 가져가 불을 끄고 평가마을 사람들이 모두 협조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화재신고를 접수한 마련119안전센터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자체 진화되어 소방대원들은 현장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진안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인근주택 주민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는 데에 공을 세운 이성재·한영자 부부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전달하며, 화재 현장 마을에서 간소하게 더블보상제 수상식이 진행되었다.

이외 진안소방서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인근주택 주민의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는 데에 공을 세운 이성재·한영자 부부에게 소화기를 두 배로 전달하며, 화재 현장 마을에서 간소하게 더블보상제 수상식이 진행되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더블보상제는 이번화재처럼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방시설을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기업인·종교계 코로나19 이웃사랑 동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무주군민들의 심신이 지친 가운데 기업인과 종교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주)카소틀 업체를 운영하는 권현남 대표는 1일 오전 무주군을 찾아 무주군민들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성품을 기탁했다. 전달된 물품은 소독제 200개로 환가액 380만 원에 이른다.

권 대표는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서 힘과 용기를 주고 건



강하게 지내시라는 차원에서 성품을 마련했다"라면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무주 향산사는 무주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고 이 사료음료수 등을 준비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중인 무주군보건의료원에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익산소방서, 소방특별조사자 비대면 교육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최근 소화의실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대면 소방특별조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전라북도 13개 소방서에 화재안전정보 조사반으로 지정된 조사반(43개반 89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6시간에 걸쳐 소방특별조사자 비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등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사항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등 각종 소방시설의 작동법 및 점검요령에 관한 것이다.

익산소방서는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들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소방



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해등의 발생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를 실시하기위하여 소방특별조사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남원소방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생수 전달

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임미옥)는 지난 1일 코로나 백신 접종시설로 지정된 춘향골체육관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생수 1,000병을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이날 여성의용소방대는 2분기 백신접종 준비 등 시민 안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관계자에게 생수를 전달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추진했다.

임미옥 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불안감을 지속되고 있지만 백신접종이 잘 이루어져 하루빨리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부산림청, 지역사회와 나무심기 행사 전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제7회 식목일을 맞아 온 국민이 나무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5개 관리소에서는 올해 573ha, 약 70만 본의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북도, 경남 서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심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부청 관계자는 "지금 심어진 나무는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탄소흡수, 수원함양, 산림재해방지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나무심기에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완주 화산면 지사협, 첫 정기회의

완주군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장치현, 윤당호)가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 복지사업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달 31일 화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연간 운영 계획 및 상반기 특화사업을 논의하고, 지역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제시된 2021년 상반기 화산면 특화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해충피해엔딩 방역활동'과 독거노인의 건강을 고려한 '영양속속 주전부리 간식배달' 사업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